

등록금 협상, 끝이 보인다

총학 4대사업 지원·T-머니 환불 등 잠정 합의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해 학교 측과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 이하 총학)가 잠정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올해 책정된 전년도 대비 재학생 7.5%, 신입생 8.5%의 인상률과 관련해 양측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견 조율의 자리를 가져왔다.

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 학사지원본부장은 “학교와 총학 양측이 약 3개월간 계속해온 등록금 협상에서 마침내 잠정적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학교는 △중국·일본 등 해외대학 탐방 프로그램 △동국 시네마데이 △서틀버스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총학이 추진하는 4대 사업을 지원하고, 등록금 인상분 일정부 환불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총학 측은 최근 문화·복지 사업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 수치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방안 외에 0.7~1.5%의 등록금 환불, 강좌별 수석장학 수혜액 100%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달 28일 진행된 총장과 학생대표 간 간담회에서 오영교 총장은 “인상분의 직접적인 환불보다는 장학금 수혜확대와 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쪽이 학업분위

기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현금환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총학 측은 “수혜자가 한정돼 있는 장학금 확대 등의 환원방식보다 모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불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러한 등록금 환원형태에 대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지원(회계2) 양은 “환불액을 학생들이 어떤식으로 활용하든지, 환불의 혜택은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박아름(행정4) 양은 “지난해 1% 현금환불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큰 돈이 모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현금환불이 아닌 환원형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된 ‘총장·학내인문사 간담회’ 영상상을 보았다는 한 졸업생도 ‘나의 주장’에 “학교와 학생은 운명 공동체”라며 현금 환불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지난주, 총학과 학교 측은 서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지금의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환불수단으로는 현금이 아닌 ‘T-머니’가 논의되고 있다.

정형주 총학생회장은 “오늘(9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단위운영자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총학의 4대 사업을 인정하고, 현금도 아니지만 학생 전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환불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등 학생대표가 원했던 것들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총장 등 대학 집행부에서 등록금 환불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끊기 위해 여러번 논의해 온 데 비해 그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유혹비 외의 활용방안을 찾아 어느정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학생측과 등록금 협상을 마무리하고, 개강 이후에 환불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은 “이번 합의 사항의 실천은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학생은 고객’이라는 새로운 모토 아래, 학생들이 현재 요구하는 사항 외에도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으니 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niltake@dongguk.edu



“동막에 찾아온 꽃바람” ...

지난주 매서웠던 꽃샘추위가 가고 동막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우체국 앞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이야기 나누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경쾌하다.

문서영 기자
syook@dongguk.edu

시간의 업무 규정 공식화

지난 3일 직원노동조합(위원장=최기석) 임금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체결식에는 오영교 총장과 최기석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의연(영어영문학) 경영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5년 단체협약사항 중 체결되지 못했던 시간의 업무 수당 지급이 주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40시간 외에 부득이하게 시간의 업무를 할 경우 그 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 정산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학교는 시간의 근무 시간을 한 달 기준 52시간으로 제한한 일반직은 9,000원, 기능직은 7,000원의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

하루 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기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나, 공식적으로 시간의 업무를 인정하고 급여지급을 결정함에 의의가 있다.

정산대 보궐선거 공방전 구성원 합의 vs 회칙준수

총대의원회(의장=정평주·야간 국제통상4)가 정보산업대(이하 정산대) 제9대 학생회 보궐선거에 대해서 후보의 자격박탈을 공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산대 학생회 선거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진행돼 지난 5일 김윤권(야간정보통신4) 후보가 당선된 상태다.

총대의원회는 정산대 선거 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을 맡아온 김윤권 후보가 현재에도 야간강좌 학생회 회원으로 정산대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것은 총학생회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공고문을 정산대 게시판에 부착했다. 이후 정산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안재복·정보통신2, 이하 선관위)는 이 공고문을 철회하고 이에 반박하는 성명문을 게시했으나 다시 총대의원회에 의해 철회되는 성명공방전이 이어졌다.

정산대 선관위는 성명문을 통해 “2005년 정보통신공학과 주·야간 학생회 통합 △각 단과대 대의원장이 전부 선출되지 않아 총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대의원장의 단독행동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 정산대 선관위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총대의원회의 후보자 격박탈 공고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장은 “정산대 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칙은 위반된 것”이라며 “합의에 의해 모든 게 허용된다면 회칙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

혔다. 지난 5일, 정산대 보궐선거는 단선후보였던 김윤권 후보가 투표율 53.3%에 찬성 90.7%로 당선됐다. 이에 정산대 안재복 선관위원장은 “총대의원회의 후보자격박탈 사유가 정산대 내 구성원들의 합의로 문제된 바가 없는 만큼 당선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격박탈 등 단과대 학생회의 선거관리 권한은 의장과 단과대 대의원장들로 구성되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으며, 우리학교 총학생회칙 상 각 단과대에서는 학과대표 중에서 대의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각 단과대가 참여부족으로 대의원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도 야간강좌를 포함한 12개 단과대 중 대의원장이 선출된 곳은 아직 없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대의원회가 후보자 격박탈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정평주 총대의원장은 “각 단과대의 대의원장 선출이 신속히 이뤄져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총대의원회가 게시한 후보자격박탈 공고문

블교TV와 교류협력사업 체결



우리학교는 블교TV와 지난 5일 본관 정책회의실에서 학술·문화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블교TV 임직원 위탁교육 △학생 인턴십 및 과외 활동 △출판물 등 학술정보 교환 △특별

강좌, 성지순례 등 블교문화사업 △영상 문화 관련 사업 △시설물 및 기자재 사용 △블교문화 및 영상 콘텐츠의 공동 개발 △정부 및 종단의 영상관련 프로젝트 공동 수주 △블교영상 및 문화관련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등이다. 특히 인턴십 수료 재학생에게는 블교TV 정규직 우선 채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는 재학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영상물 제작 기법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제1443호는 5월 7일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교원보직인사

경영기능 강화를 꾀하려 도입했던 경영부총장 제도는 당분간 한진수(회계학) 학사부총장의 겸임으로 이뤄진다. 한편 직제개편으로 국제교육원이 폐지되고 국제화추진단이 설립됨에 따라 김일중(국제통상학) 교수가 국제화추진단장에 임명되었다.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팀장에는 박영환(중어중문학) 교수가, 글로벌기획팀장에는 최경규(경영학) 교수가 임명됐다. 다음은 그 이외의 교원 보직인사 발령 명단이다.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팀장=김승웅(경영학) △전략홍보실장=곽대경(경찰행정학) △불교대학원 부원장 겸 불교대학 부학장=정승석(인도철학) △문과대학 부학장=김용기(일어일문학) △이과대학 부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부학장=최승렬(경찰행정학) △경영대학 부학장=김갑순(회계학) △공과대학 겸 정보산업대학 부학장=임종주(생명·화학공학) △교육대학원 부원장 겸 사범대학 부학장=권동희(지리교육) △의료원 전략경영실장=성낙진(의학) 이상 4월 1일자

체육부 경기 일정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오늘(9일)부터 열리는 '2007 헬벨코리아 전국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참가한다. 우리학교의 예선 첫 경기는 오늘 제주시 주경기장에서 명지대와 진행한다.

농구부(감독=이중희)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07 MBC배 전국대학농구 김해대회'에 참가한다. 우리학교는 경희대, 명지대, 성균관대, 연세대, 조선대와 함께 A조에 속해 있고 예선 첫 경기는 18일 김해체육관에서 명지대와 갖는다.

이주현 기자
niltake@dongguk.edu

3면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 · 대학생과 건강 ·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8면 학교 홈페이지 100배 활용하기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시접수 4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전치일시 4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원시면담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출 무료 수강, 언론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의료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커버스토리

대학신문, 인터넷과 독자를 끌어들여라

대학신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인쇄매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대학신문이 독자의 변화속도에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새로운 신문'으로 거듭나려는 대학신문들의 시도를 조명해 본다.

관련지면 5면 커버스토리면
 - 변화의 날갯짓으로 독자에게 다가서는 대학신문
 - 독자 관심과 참여 증대가 최대 과제

대학신문, 인터넷과 독자를 끌어들여라

대학신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인쇄매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대학신문이 독자의 변화속도에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새로운 신문'으로 거듭나려는 대학신문들의 시도를 조명해 본다.

관련지면 5면 커버스토리면
 - 변화의 날갯짓으로 독자에게 다가서는 대학신문
 - 독자 관심과 참여 증대가 최대 과제

학교예산 집행과정 개선

단위부서에 행정책임 강조한 절차 간소화

우리대학의 예산 집행 절차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은 해당 부서에서 시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가예산을 전략예산팀에 승인받아 진행하고, 이후 전략예산팀에서 집행내역을 확정해 지출 결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최종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사업선정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예산 집행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항은 100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지출계획 등록 및 승인 단계 △전략예산팀 예산 승인 관련 조정 단계 △집행내역 확정 단계를 생략하고 부서 내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100만원 이상 사업도 지출계획 등록 및 승인절차가 생략되는 등 간소화된다. 중앙본부에서 결정하고 지시하는 중앙집권 체제였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각 단위부서가

사업시행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본부는 서포터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전통제를 줄이는 대신에 연말에 있을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 각 단위부서의 책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증대되고, 부서별로 진정한 자율적인 책임행동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전략예산팀 김태식 과장은 "이 방법이 시행되면 앞으로의 행정처리가 한 단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학기부터 시작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점차 예산 범위를 늘려 내년부터는 예산의 전부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총액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2007학년도 예산 조정에 대한 계획이 새로 발표됐다. 이번 계획안에는 직제개편과 인사이동 등을 통해 신설·변경된 부서의 예산 조정계획을 비롯해 대학원의 예산과 예산 집행 절차의 개선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명칭만 변경된 부서의 예산은 전액 이월 됐으며, 신설 및 업무 변경 부서는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대학운영이 단과대학 중심으로 옮겨 가면서 변경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교의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책임 교수의 해당대학으로 예산이 배정되며, 교내 연구비는 단과대학의 총액으로 배정된다. 부서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는 사업 변경은 가능하며,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배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대학원 행정지원실이 없어짐에 따라 대학원 실험실습비 및 교육기금에 대한 잔액도 학과별로 파악해 해당 단과대학의 실험실습비와 교육기금으로 편성된다. 심사를 거쳐 결정될 추가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푸르게 푸르게" ...

지난 5일 생명자원과학대학(학장=이명훈·식물생명공학)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소재의 연습원에서 교직원 및 학생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학생들이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를 심는 모습.

한전부터

공대생의 집



○...공돌이 공순아 세 집 줄게 공과대 도서관 다오. 네가 지은 집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 다른 곳으로 옮겨 짓거라.

야속한 칼기증

○...장모=자네 가정형편은 어떤가? 사위=지방세가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장모=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사위=지방세가 많다고 꼭 부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모=그래도 무조건 안 되네. 사위=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면 서 이리셔야 됩니까? 장모=지방세가 10만원이 넘으면 '북미주 해외탐방 장학' 혜택도 못 받는다는 거 모르나? 난 반대일세. 자네 면접조차 못 봐!

라면맛 커피

○...학교 여기저기 매점에 있는 정수기 이용 해봤어? 그 정수기 물 나오는 데에 컵라면 분말스프가 딱딱하게 붙어 있는 거 봤어? 그 라면스프가 딱딱하게 붙어 정수기에서 커피 타먹어 봤어? 난 해봤어. 컵라면 먹을 때 스프 다 흘러는 너희들. 정수기 청결상태 체크 안하는 매점 직원들. 난 당신들 때문에 커피 맛을 잃었어.

처방전 = 대화

○...유도지=지방의 한 한의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문제로 폭력사태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대지요? 허준=어허, 그래서야 되겠소? 총학생은 단위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학교 측에 전달했어야지요. 유도지=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한의대 학생들도 충분한 대화 없이 수업거부와 농성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허준=총학과 학교 측은 학생들을 동원해 폭력으로 진압했다던데... 무조건적인 강경대응은 아니되지요. 줄을 서시오~ 차례 차례 말씀을 하시오.

야간강좌가 설 곳은 어디에?

학생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선안 필요

우리학교는 지난 2005년 야간강좌를 폐지했다. 당시 각종 사이버 대학이 신설되고 학점은행제가 확대되면서 취업자인 신입생들의 지원이 감소돼 야간강좌의 원래 취지가 퇴색되었고, 성균관대와 경희대가 야간강좌를 폐지하는 등 대학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야간에서 주간에로의 학적 변경이 허용된 후, 현재 야간강좌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총 267명이다. 2005년 경영학과와 국제통상학과에 한해서 110여명을 뽑은 이후 신입생을 더 이상 모집하고 있지 않지만, 재학생들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간강좌 소속 학생 수가 감소하는 과도기적 시기를 거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야간강좌는 2004년과 2005학년도에 입학한 3·4학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3·4학년 수업이 개설되고 있지만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다. 전년도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정평주(야간국제통상4) 군은 "성균관대의 경우 야간강좌를 폐지하면서 미처 졸업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한 몇몇 학생들이 졸업을 못한 경우가 있다"며 "우리학교에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음지 우려했다. 이에 야간강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장금

숙 직원은 "남은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조차해 개설하여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수업시간 배정에 대한 불만도 크다. 야간 수업은 6시부터 시작되는 10교시 수업과 8시 20분부터 시작되는 13교시 수업이 각각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퇴근시간이 주로 5시에서 6시 사이이기 때문에 학교까지 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결손되는 수업량이 적지 않다. 때문에 학생들은 전공수업이 13교시 수업에 많이 배정되길 바라지만 대부분의 전공수업은 10교시에 시작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로는 동국관 식당의 운영시간 축소를 들 수 있다. 동국관 식당은 야간강좌 학생회실 폐쇄를 계획했다. 당시 야간강좌 총학생회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야간강좌 폐지가 결정됐을 때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야간강좌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폐지가 이뤄졌지만 2005년 여름 공간조정 등의 이유로 동국관 2층에 있는 야간강좌 학생회실 폐쇄를 계획했다. 당시 야간강좌 총학생회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우리학교의 한 구성원들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학생들에 비해 복지면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에는 그 권익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동약로에서, 이럴 수가!

우리학교는 공간부족문제 그 어느 주요대학보다 어려움이 많다. 증축하자니 남산고도 제한에 가로막히고 땅을 넓히자니 비싼 토지가격 때문에 적극적인 매입이 어렵다.

이에 오영교 총장이 선포한 108프로젝트에서도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김없이 제시되었다. 바로 **혜화관 앞 등 지하공간을 개발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술문화관, 중앙도서관, 정보문화관 등 각 건물들의 층고가 예정돼 있다. 이와 같이 공간을 늘리는 방안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간을 더 이롭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각 건물마다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간을 늘릴 수 없다면 주어진 공간 내에서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해

야 한다.

학교시설을 담당하는 한 직원에게 "각 학과의 학생회실이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일이 많다"며 "이를 시정하면 개방형 열람실이나 휴게실, 강의실 등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공간 사용을 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회실을 이용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선·후배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로, 학생회실은 학과의 중심점이 된다"며 학생회실의 변화라는 가정을 일축했다.

물론 어느 학과마다 그들만의 공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각 대학별로 배정된 공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짚어 보아야 한다. 특히 사범대학의 학생회실은 공과대 기계공·토목환경공·건축학과 학생회실 넓이의 4배에 다다르고 여느 일반 강의실 하나만 하다. 이에 사범대 한 학생은 "단과대 특성상 학과 활동이 활발해 학생회실 이용률이 높다"며 "대면

식, 율동제, 연극, 소모임 등의 다양한 크고 작은 일들로 단과대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립관 공간 배치에 대해 학교관계자는 "교양수업이 많이 이뤄지는 학립관에 강의실 확보를 위해 몇 년 전부터 학생회실의 넓이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있어 무산됐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공간을 활용하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생각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제47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

4·19혁명 47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충절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19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국가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행사일시 : 2007. 4. 13.(금) 09:00~16:00
- 행사장소 : 국립 4·19묘지(추모식) 및 북한산(등산대회)
(집결장소 및 시간 : 국립 4·19묘지 내 화장 09:00까지)
- 행사내용 : 제47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
- 행사일정 및 준수사항

시간	행사 내용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08:30	등산대회 단체합인	안내책자 수령 및 '산복조성리본' (행사 본부에서 제공) 착용
10:00	4·19혁명 47주년 기념 추모식 (연하, 분향, 묵념)	참가자 전원 4·19 기념탑 앞으로 이동 후 합동 분향
10:20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식	
10:30	등산대회 출발(북한산)	
12:20	중식시간(대부분)	중식 시간(12:20~13:30) 엄수 및 과도한 음주 삼가 (시상 기준)
13:30	전원 출발(도산사 코스로 하산)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 민주주의를 위해 신화하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4·19정신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동국인 모두 이끄는 반듯이 준수합니다.
- 가. 4·19기념 추모식 : 행사참가자 전원 참석 → 행사 전 4·19 기념탑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합동 분향
- 나. 동국인 등산대회 : 중식 시간 및 폐회식장소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중식 시 지나친 파음 절대 삼가.
- 다. 등산대회 중식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는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올 것.
- 등산경로 : 국립4·19묘지 → 백련사배교 → 대동문 → 도산사
* 안내와 의료지원에 위해 등산로 주요 위치에 산행지원팀 및 의료지원팀을 배치함.

학사 지원 본부

English Clinic Orientation

지난 2학기에 이어 English Clinic이 4월 16일 open 합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운영위치 : 재학생 여러분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혜화관 1층에 English clini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오셔서 원어인 선생님께서 영어상담을 받으시고 영어 향상의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방법 : 사전예약제입니다. 신청양식에 상담내용 및 시간을 기재해서서 최소 1주일 전에 English clinic에 제출해주시거나 [ie@dongguk.edu](http://ie.dongguk.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은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ie.dongguk.edu>
- 상담분야 : 1) Speech 2) Writing
- 주의사항 : - 최대 1회기에 5회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회당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이용을 위해서 1주일에 1번 이상 중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및 단체 (최대4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담시에는 막연하게 방문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양식에 미리 기재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예제를 작성해보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영어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제를 부러 드리는 일은 삼가아주세요! - 예약 후 연락 없이 취소하는 일은 No! 예약 취소를 원할 시에는 최소 3시간 전까지는 연락을 하여야 하며, 2번 이상 취소할 경우 해당회기에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더 자세한 이용안내를 위해 English clinic 오리엔테이션이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4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장소 : 혜화관 1층 국제교육원 English Clinic (문의전화: English clinic 2260-3474)
▶ 시간 : 4월 11일(수), 12일(목) 오후 8시

국제교육원

2007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0000명(2학년 남학생)
- 지원자격 :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 및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자
- 군인사법 제 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3. 12 ~ 4. 24
- 구비서류 : 1. 지원서(4x5 사진부착) 1부 5. 주민등록등본 2부
2.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6. 호적등본 2부
3. 대학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7. 고교생활기록부 1부
4. 칼라사진 3매 8. 가산점 증명서류 1부
-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학군사관
지원서 접수	2007. 3. 12 ~ 4. 24
체력 / 신검 / 면접	2007. 4. 25 ~ 5. 25
1차 합격자 발표	2007. 6. 22
인성검사	2007. 6. 25 ~ 7. 13
신원조회	2007. 6. 25 ~ 8. 24
최종 합격자 발표	2007. 8. 31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7. 8. 31
- 특 전 : ○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다. ○ 재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 전역후에도 일반 입대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수시 1학기 폐지 · 'Centennial Scholarship(가칭)' 전형 신설

지난 달 21일 우리학교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안)'을 발표했다. 전형유형의 기본방향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수능성적, 학생부, 논술 등을 전형요소로 하는 지금까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교육인적자원부 대입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을 고려했다. 또한 학업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식 평가보다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등급제 실시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각각 언어, 외국어와 수리, 과학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장 큰 변화는 수시1학기 전형을 폐지이다. 이는 2010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수시모집 구분으로 인한 고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모집인원은 수시 2학기 모집 인원에 통합했다. 수시 1학기의 연기재능우수자전형은 공연예술학부 일반우수자전형에 통합되고 리더십전형은 2학기로 옮겨졌다. 한편 수학과학교과우수자전형은 기존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해서 폐지되었다. 수시는 2007년 2월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가 지원가능하고 재학생과 재수생간 교육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전형의 틀을 유지했으며, 비교내신은 수시 및 정시 일반전형에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수시 2학기는 일반우수자전형과 △리더십전형 △Centennial Scholarship(가칭) △사회기여자자녀전형 △외국어고, 국제고 출신자전형 △외국어 우수자 전형 등의 특별전형으로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지정교과 및 논술로 단계별전형을 실시했던 일반우수자전형(공연예술학부 제외)을 일괄전형으로 전환해서 전체 모집인원의 약 30%를 선발하며, 특별전형으로 약 15%를 선발할 예정이다. 일괄전형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단계별전형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Centennial

Scholarship(가칭)'을 제외하고는 기존처럼 최저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Centennial Scholarship(가칭)' 전형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지하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학생부 4개 영역(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 or 과학) 모든 과목 1~2등급 해당자가 지원 가능하며 심층면접 90%, 자기소개서 10%로 선발한다. 합격자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월 150만원 생활비 지급 △개인 특별 지도교수 지정 △재학 중 해외 연수 프로그램 실시 △과외엘리트 장학 신청 시 가산점 부여가 지원된다. 수능 최저등급은 언어, 외국어, 수리 모두 1등급이다.

지정 교과 성적과 심층면접고사로 진행되는 외국어 우수자 전형은 외국어 성적 80%, 해당 외국어 심층 인터뷰 20%로 전형 방법이 바뀌었다. 단순히 증명서가 아닌 실제 언어구사력을 테스트함으로써 전형 요소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시모집은 가군, 나군 분할 모집을 실시한다. 가군에서는 전체 모집정원의 약 29%인 817명을 선발하며, 나군에서는 약 26%인 708명을 선발한다.

공연예술학부(실기)를 제외한 가군 일반 전형은

수능 성적 100% 선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능을 잘 본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군은 수능 40%, 학생부 50%, 논술 10%로 선발하며, 학생부와 논술이 각각 10%, 5% 늘어났다. 2+1체제로 운영되던 자연계 전형이 언어를 포함해서 3+1체제로 변경되고, 수시에서만 논술을 반영하던 자연계 논술이 정시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논술을 통해 학업이수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논술은 '통합교과 자료 제시형'으로 '정보 이해 능력'과 '논리적 분석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언어적 표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논술 비중 확대로 인해 변별력을 높이고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20분, 1,500자 이내에서 150분, 2,000자로 시간과 분량이 늘어났다.

발표된 우리학교 입시전형은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모집 예정 인원은 총 2,825명이며 보다 구체적인 입시요강 확정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2008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내용)

전형시기	구분	전형유형	전형방법	비고
수시1	일반전형	폐지		
수시2	특별전형	일반우수자전형 (인문/자연/영화영상)	학생부 60% + 논술 40%	일괄전형
		리더십전형	1단계: 학생부80% + 서류20% 2단계: 1단계성적80% + 심층면접20%	1단계: 5배수
		Centennial Scholarship (가칭)	심층면접90% + 자기추천서10%	지원자격: 학생부 지정교과 1~2등급 수능최저등급 적용
		외국어우수자전형 (영어/일어/중국어)	외국어성적80% + 인터뷰20%	해당 외국어 심층 인터뷰
		외고·국제고출신자전형	학생부80% + 심층면접20%	
정시(가)	일반전형	일반우수자전형	수능 100%	
정시(나)	일반전형	일반우수자전형	수능40% + 학생부50% + 논술10%	인문/자연계 논술 실시

대학생과 건강 ③ 눈(콘택트 렌즈)

올바른 콘택트 렌즈 사용법 지켜야 관리·세척에 특히 신경쓸 것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 안경을 쓸 때의 안경 렌즈의 효과가 없어서 미관상 많이 좋아진다. 특히 근시인 경우 오목 렌즈의 축소 효과가 없어서 눈이 정상크기로 보여 안경을 쓸 때보다 눈이 크게 보이고 눈 주위의 테가 없어서 눈이 더 예뻐 보이게 된다.

콘택트 렌즈는 크게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로 나누어진다.

소프트 렌즈는 눈이 적응하기는 쉬우나 각막이 필요로 하는 산소 투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저산소증이 심해지면 각막 신생혈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미생물이 더 달라붙기 쉬워 감염성 각막염의 빈도가 높고 각막염이 심하면 각막에 혼탁을 남겨 시력의 손상을 남길 수 있다.

하드 렌즈는 초기의 적응은 소프트렌즈보다는 어려우나 최근엔 디자인이 많이 좋아져서 착용감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눈물의 순환이 좋아 소프트 렌즈에서 야기되는 저산소증의 문제가 없고 미생물이 달라붙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감염성 각막염의 빈도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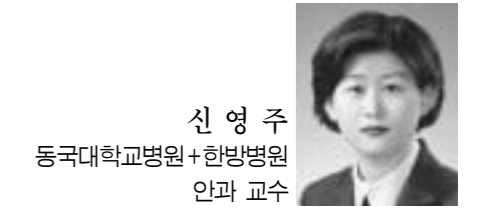
이런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여럿 있는데 첫 번째는 관리, 세척을 잘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콘택트 렌즈

의 세척과 관리를 잘해야 미생물이 달라붙지 않고 눈에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잘 때는 반드시 빼야 한다. 잠을 잘 때는 눈을 감기 때문에 각막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주는데 콘택트 렌즈를 끼면 훨씬 더 감소하여 각막상피의 기능을 저해하고 미생물이 더 잘 달라붙게 되므로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

렌즈를 착용하면서 눈에 충혈, 안통, 눈곱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안과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환에 따라서는 치료가 늦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서클, 칼라 렌즈는 미용 상으로는 현격한 호전을 보일 수 있으나 각막에 닿는 부분이 거칠면 각막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질이 나쁜 색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색소가 녹아나올 수 있다. 또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자체가 산소투과율이 낮는데 거기에 색소를 입히면 산소 투과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주의 깊게 착용을 요한다.

이런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는 안과에서 안과 의사와 상담하여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법적이고 안전하다. 콘택트 렌즈의 착용 시 주의의 점을 잘 알아 합병증을 예방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해야겠다.



신영주
동국대학교병원·합병병원 안과 교수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3. 자연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

자연계 특성을 강화한 통합형 논술 실시

글 쓰는 순서

1. 동국대 통합논술, 이렇게 출제하고 평가한다.(윤재용 교수)
2.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윤재용 교수)
3. 자연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성정석 교수)
4.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인문계 신입생)
5.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자연계 신입생)
6.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하세요.(인천대건고 논리학 교사 주영기)

자연계 논술연구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우리 대학에서 출제했던 통합형 논술의 큰 틀 내에서 자연계의 특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모의논술고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이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은 수능 및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보완하여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함에 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의 잠재적 수학능력은 객관적 현상에 대한 엄밀한 분석력과, 이를 토대로 도출된 주장이나 명제에 대한 논리적 이고 비판적

인 사고력을 토대로 한다. 이는 논술의 주요 평가항목인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함께 요구되는 필수 사항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한 자연계 논술모형에 다음과 같은 평가사항이 고려되었다.

잠재적 수학능력 평가

- ①자연현상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기초적인 수리능력,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사고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 ②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전통적인 과학 중 한 분야로만 다루어지지 않으며, 각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설명되어진다. 따라서 어느 한 교과목의 단편적 지식이 아닌 통합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③암기에 의존하는 특정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답할 수 있는 독해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 ④자신의 주장을 제시문에서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분

석력과 논리적 표현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⑤자연과학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식, 도표, 그래프 등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이야기기 되겠지만, 수험생들이 모든 교과목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풍부한 글 읽기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왔는지,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충분한 표현능력을 갖추었는지, 자연계열 지원자답게 자연과학적 현상에 관심을 가져왔는지 등에 대한 평가이다.

이번 자연계 모의논술에는 인문계적 소양의 검증에 관련된 한 문제를 포함 총 4문제를 출제하였다. 기존의 논술에 비해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제시문의 양이 늘어났고, 시간도 150분으로, 답안 글자 수 제한도 2,000자로 늘려, 논술의 형식은 완화하고 답안 내용은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해결력 요구

첫 번째 문항에서는 시사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에 관한 다양한 제시문들을 소개하고,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이들 내용을 논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시문(가)에서 최근 발표된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 보고서에 대한 신문기사 형식의 글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설명한다. 다음 (나)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처방안의 하나인 이미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산업적 기술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다)에서는 이산화탄소 방출 자체를 억제하는 재생에너지원 사용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전처

리와 후처리에 대한 대조적인 방안이 있음을 암시하는 제시문의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라)의 생물학적인 이산화탄소 후처리 기술과, (마)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지구온난화 대처 방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제 1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찾고 그 대처방안들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논술 문제로,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는지에 대한 독해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인문학적 소양 검증

문제 2는 지구온난화라는 과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환경정책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술을 요구함으로써, 자연계열 수험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산화탄소의 전처리와 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지구온난화의 사전예방과 사후에 방을 구분하고, 미래 환경정책으로 중요시되는 사전예방 방식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제시문에 미래 환경정책 기조인 사전예방 방식을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시문 전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두 가지의 대비되는 환경정책을 분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범답안을 크게 벗어날 수 있다.

논리적 사고력 측정

문제 3에서는 인간 유전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총 6개의 제시문은 각각 다양한 형식의 글로 구성되었다. 제시

문(가)는 건강지침서 등에서 볼 수 있는 암 예방법에 관한 안내서 형식으로 발암의 환경적 요소를 제시하였고, (나)에선 자연과학 기초교재의 설명문 형식의 글을 통해 질병과 유전의 관계에 있어 환경적 요소의 작용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반면 (다)는 과학사를 다룬 고전 형식의 글로서, 지능 같은 인간형질이 전적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종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우생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제시문들의 주요 논점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는 대중매체 기사문 형식으로 최근 유행하는 유전자 검사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고, (마)는 자연과학의 표현수단 중 하나인 실험결과 표를 제시하여 유전적 요인보다 양육환경이 아이들의 지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수험생들이 분석하도록 하는 제시문이다. (바)는 수험생 수준에 맞추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자연과학 연구논문 형식의 글로, 실험에 대한 설명과 연구결과를 수치로 제시하여 그 주요 논점인 지능에 미치는 환경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제시문들은 그 서술방식이 다양하여 확립된 독해방식으로는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지문의 분량도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문제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다른 제시문들과는 달리 인간 표현형에 있어 환경적 요인의 작용을 배제한 제시문(다)를 찾아 논지를 분석하고, 다른 제시문들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형식과 차별성이 있으며, 각 제시문의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모범답안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엉뚱한 논리를 펴게 된다. 모의시험 결과 상당수 답안에서 비논리적인 전개 또는 단순한 제시문 내용의 나열로 인해 감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전문적 지문 분석력

문제 4에서는 컴퓨터의 성능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전문적인 컴퓨터 관련 지식을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여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성능향상과 전체 컴퓨터 성능향상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논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컴퓨터 성능에 대한 수식도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주어졌으므로 기초적인 독해능력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모의시험 참여자의 15%가 본 문제에 대해 전혀 답안 작성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문적인 과학적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전문적인 과학관련 기사문 또는 과학서적 등을 읽고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논술고사의 목적은 대학에 들어와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수험생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이 단기간의 집중적인 논술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교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충실한 학습, 일상에서의 꾸준한 독서와 같은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논술 준비방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정석
이과대 생명과학과 교수
2008년 논술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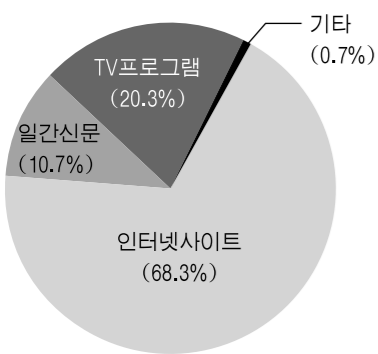
동대신문 창간기념 '대중매체 선호도·동대신문 관심도' 설문조사

68.3% 인터넷사이트 통해 뉴스 접해

학생들, 학내 언론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관심은 저조 ... 홈페이지 활용 필요

본사는 지난 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동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아 우리학교 통계연구소에 의뢰해 각 단과대별로 학생·성별·인원수에 비해 하도록 할당추출을 통해 우리학교 2학년이상 학생 400명(△2학년=125명, 31.3% △3학년=132명, 33% △4학년=143명, 35.7%)을 대상으로 대중매체 선호도와 동대신문 관심도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 정보습득출처



대중매체 선호도

우리학교 학생들이 주로 정보를 접하게 되는 매체로는 전체 응답자 68.3%의 학생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택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이유에 대해 42.3%의 학생들이 '접하기 쉽기 때문'이라 답했다. 이는 인터넷이 학생들에게 가장 접하기 쉬운 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 뒤로는 TV프로그램(20.3%), 일간신문(10.8%)을 기록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정보를 얻는 매체로서 '인터넷 사이트'의 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있지 않지만, 온라인 사이트에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인터넷신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학사일정 및 정보를 주로 얻는 출처에 대해 81.8%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주변 학교 동기, 선·후배'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의견도 14%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오프라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학내 언론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의견은 동대신문(1.8%), 교육방송국(0.5%)로 소수에 그쳤다. 학생들의 온라인 매체 선호에 맞게 온라인 활동도 함께 활용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내 언론사의 필요성

현재 학생들이 학내 언론사에 관심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내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내언론사의 필요성에 대해 69.3%가 '학내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학내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44%가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 전달'이라 답했고, 그 뒤를 '학내 행정 및 제도에 대한 비판과 견제(26%)', '학내 소식 및 학교 행사 보도 및 홍보(23.8%)'가 있었다. 예전에는 대학신문의 '비판 및 감시 역할'이 강조되었던 반면 현재에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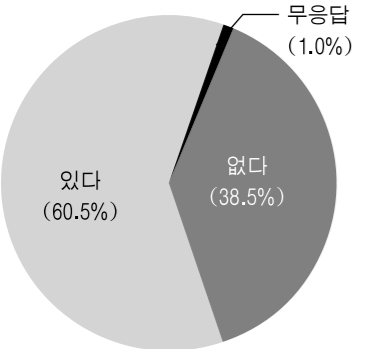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건의사항

동대신문과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동대신문 발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각 단과대, 학과별 다양한 소개 및 건의사항 기사화 해달라'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동대신문 웹진구독의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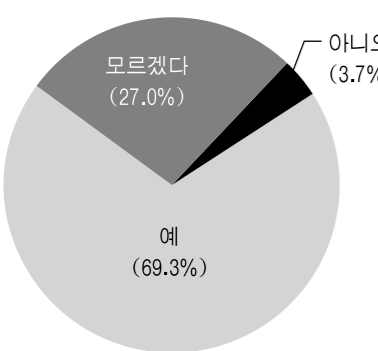


동대신문 구독률

동대신문 구독빈도수에 대해서는 '거의 보지 않는다'는 답변이 75%로 지난해 62.6%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신문배부대가 어딘지 모른다'라고 15.3%의 학생들이 답해 신문배부방식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대신문을 보는 목적으로는 14.8%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본다'라고 응답했다. 동대신문을 보지 않는 이유로는 '동대신문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답한 학생이 40.5%였고, 그뒤를 '신문 배부대가 어딘지 모른다' (15.3%), '흥미 있는 기사가 없는 것 같다' (10.8%)가 이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학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점차 갖지 않고 있고, 학생들의 눈이 쉽게 뜨일 수 있도록 신문배부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학내언론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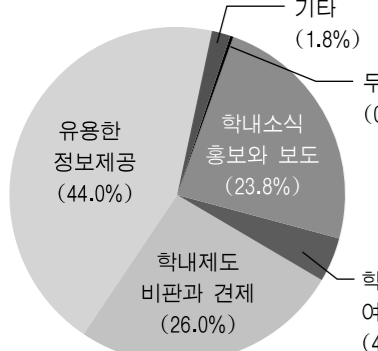
홈페이지 접속횟수

동대신문 홈페이지 접속경험에 대해서 91%가 '없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62.3%가 '인터넷 동대신문이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라고 답해 인터넷 동대신문에 대한 홍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매체수단으로 변화한 만큼 인터넷 신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맞는 인터넷 신문 홍보방식과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대신문 e-mail 웹진(Web Zine)을 발행에 대해서는 60.5%의 학생이 '웹진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답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생들이 오프라인 신문에는 별 관심을 보이고

● 학내언론사의 역할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동대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upress.com)가 새롭게 단장했다. 기존에는 종이신문의 기사를 단순히 업데이트 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기사를 업데이트 해 기사의 신속성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

①메인메뉴는 △보도 △기획 △문화 △교육 △여론·칼럼 △특집 △독자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메뉴를 통해 그 주 오프라인 신문의 기사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면화되지 못한 취재사진을 볼 수도 있다.

②정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기사는 그 주 각 지면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고 '뉴스ON'에서는 속보나 중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③'독자마당'에는 독자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한 자유게시판, 사진게시판, 학보모니터게시판이 있다. 독자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다.

④종이신문을 통해 식단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동대신문 홈페이지 '금주의 식단'을 통해 언제든지 식단을 알 수 있다.

⑤'구독신청'란을 클릭하면 무료로 동대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고 '기사제보'란을 통해 동대신문에 지면화 됐으면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제보를 하는데 꺼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밑에는 각 단과대, 학과, 동아리 행사일정도 소개하고 있다. 날짜를 클릭하면 학내 행사나 학외 문화행사

에 대해 간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설문조사는 대립되는 학내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었고 투표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인터넷신문이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신문도 변화에 맞추어 이번학기부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선거개표와 같은 실시간 기사

업데이트에 신경을 써서 항상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고, 지면 제한이 없다는 점을 살려 사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과 달리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새로운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해 나가는 동대신문이 되도록 독자들의 많은 참여와 질책을 부탁드린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2007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특별전형)

- 1. 모집과정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2. 모집인원 : 학과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3. 지원자격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석·박사과정)
5. 전형일정

Table with columns for '구분' and '일시 및 유의사항'. It lists application dates and procedures for different departments.

동국대학교 입학처
http://www.dongguk.edu
서울캠퍼스 : 입학처 입학관리팀(학술관 1층) TEL (02)2260-8861 ~ 4
경주캠퍼스 : 입학처 입학관리팀(원효관 1층) TEL (054)770-2031 ~ 4

제18회 에코포럼 정례세미나 개최

2007년 4월 봄을 맞아 에코포럼에서는 '희망사상을 통해 본 희망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18회 정례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교공동체, 지역공동체, 이념공동체 등을 통해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가운데 종교공동체에 관한 담론을 통해 현실의 문제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07년 4월 27일(금요일) 오후 3:00 ~ 오후 5:30
장소 : 동국대학교 동국관 M동 3층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
주최 : 에코포럼
주관 :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 주제 : 희망사상을 통해본 희망의 공동체
- 사회 : 백남석(인도리광생명공동체 상임대표)
- 발제 : 도법스님(인도리광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생명평화결사 탈탈순례단 단장)
- 토론 : 양재성(기독교환경연대 대표)
박영선(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성균(한신대 학술원 교수)
황대권(생명평화결사 교육위원장)
유정길(에코부터 대표)

문의 : (전화) 02-2260-8648, (팩스) 02-2260-8649 (이메일) ecoforum@dongguk.edu

생태환경연구센터
www.eco-forum.or.kr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생태학총서 선의 생태철학 서재영 지음 2007/ 신국판/ 468면/ 22,000원 ISBN 978-89-7801-187-7 94220



이 책은 '선의 생태철학 연구'라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선(善) 사상에 내재된 생태적 상상력과 전통에 대해 생태철학적 관점에서 논구한 책이다. 생태위기의 심각성은 세상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인류가 처한 이 같은 생태 위기에 대해 학자들은 서구의 지배적 세계관이 초래한 위기라고 분석한다. 자연은 죽어 있으며 인간은 생명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지닌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산과 소비가 찬양된다.

생태위기의 근원이 이 같은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적 전통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전한 삶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해서 최근 불교학계에서도 불교 사상과 전통을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학계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저자가 입문한 근거로 삼는 것은 다양한 불교사상 주저에서 선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태위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초래된 문제인 만큼 개개인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삶의 양식은 곧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근거한다. 이 점에서 생태철학과 선(善)의 공통분모가 성립된다. 선적 삶과 생태적 삶은 모두 존재에 대한 바른 안목을 바탕으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삶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사들은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정신으로 자연과 조화된 소박한 삶을 지향했다. 생태철학자들 역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저소비경제와 저소비사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욕망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신적 고(苦)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들이 제시했던 종교적 가르침이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불교와 선사사상은 근본생태론을 비롯해 생태철학의 내용과 실천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 이 책은 선적 전통 속에 내재된 풍부한 생태적 전통과 사상을 주제별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모색하고 있다.

2 인도불교의 변천 사치키 시즈카(佐々木謙) 저/이리랑 옮김 2007/ 신국판/ 462면/ 22,000원 ISBN 978-89-7801-188-4



불교 다양화의 원인을 고찰한 연구서이다. 초기불교에서 밀교에 이르기까지, 또 인도불교에서 일본불교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는 불교의 생명력, 바로 이 다양화의 계기를 저자는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왕 시대에 불교승단에서 발생한 한 역사적 사건에서 구한다. 지금까지 불교 다양화 현상의 원인이 논의를 경우, 불교는 종교가 지니는 관용성에서 그 이유를 찾는 등 매우 추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는데, 본서는 아쇼카왕의 비문이나 각 부파가 남긴 율장 등 객관적인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본서가 불교 다양화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사건은 아쇼카왕 시대에 파갈마승(kaṃbhada)으로 파승승단(波승승단, cakrabhāḍa)에서 파갈마승(kaṃbhada)으로 파승승단을 바꾸는 것에 의해 승단 화합을 달성하고자 한다. 파갈마승이라는 새로운 파승승단의 등장으로 인해, 교외가 다른 자리로 승단화상을 함께 하는 한 파승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새로운 원칙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아쇼카왕 때 불교승단의 형식적인 화합은 달성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 서로 다른 교외의 승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불교는 다양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서의 결론이다.

올 연구자인 저자는 유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 역사적인 가설을 매우 치밀하게 논증해 가는데, 그 논증 방법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대승불교의 발생 배경에 관해서도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제공하는 등, 인도불교승단의 역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서이다.



변화의 날갯짓으로 독자에게 다가서는 대학신문

을 유망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판형의 변화는 신선한 충격으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학신문의 판형 비교.

당신은 매주 월요일 어떤 신문을 보십니까? 정치, 사회분야의 뉴스를 접하기 위해 인터넷 기사와 일간지를 접한다면 대학사회의 소식을 접하기 위해선 대학신문을 접하는 것이 맞는 논리가 아닐는지. 하지만 대학 신문은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대학신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대학신문의 위기'라는 말이 생긴 지도 10년 다 되어 가지만 대학신문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변하지 않는 대학신문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를 살펴볼 때 신문의 세부적인 기획 변화는 있었지만, 신문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거의 없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신문에 대해 '운동권에 편향됐다'거나 '내용이 딱딱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달라진 대학신문 판형

지금의 한계에서 벗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대학 신문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학신문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독자가 읽기 쉬운, 독자가 접하기 쉬운 신문을 만들고자 이뤄진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독자가 읽기 편한 판형으로의 변형이다. 연세춘추는 지난해부터 신문 가로 길이를 줄이고 세로 길이를 늘린 '국민일보형'으로 판형을 바꿨다. 또한 경희대 대학신문 '대학주보'도 이번학기부터 판형을 프랑스 '르몽드'지의 판형인 '베를리너판'으로 바꿔 신문을 펼쳐보기 쉽고, 휴대가 간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관심

대학신문의 위기

대학신문이 이처럼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예전과 다르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적어진 만큼 대학신문을 보는 이들도 줄어들고 있다. 둘째, 인터넷의 발달로 굳이 대학신문을 보지 않아도 학교 홈페이지 등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안대의 경우 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 등의 학내 언론사가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경희대 '대학주보' 남승희(정치외교3) 편집장은 "여러 콘텐츠가 함께 있어 독자들이 뉴스를 접하는데 편리하고 각 언론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 한다"고 말한다. 통합홈페이지의 경우 각 언론매체 담당 기자들이 모여 기획과 관리가 이뤄지는데 운영과 동시에 언론사의 통합된 심층기획으로 통합홈페이지의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 신문사는 자체적인 이벤트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말한 연세대 연두의 강의평가를 비롯해 스도쿠, 오타 찾기, 제보함을 만들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고 있다. 고대신문은 '우리말장집다리', '스도쿠', '빨간등그라미' 3가지의 독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스도쿠'의 경우 참여율이 매우 높아 당첨되기 위한 독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정도이다.

지속적인 홍보

잘 만들어진 신문도 독자가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학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동문, 재학생, 교직원에게 발송해 인터넷 신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연세춘추는 웹 대자보를 만들어 싸이클링, 각 과 홈페이지 등에 올려 스크랩할 수 있게 해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다.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

오프라인 신문으로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다. 연세대의 경우 인터넷 신문과 함께 웹진(webzine) '연두'도 운영하고 있다. 매 학기마다 '연두'에서 진행된 강의평가가 학생들의 높은 참여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강의평가라는 주제도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동시에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토리'를 선물해 더욱 높은 참여를 이끌어 냈다. 오프라인 신문은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서 벗어나 고려대 인터넷신문 '쿠키'는 쿠키기획을 통해 기사화하기에는 가법지만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아이টে임을 선정해 인터넷 신문에만 실리는 기획기사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맛집, 주거, 야라바이트 등의 생활정보를 인터넷 신문에서 제공해 인터넷신문을 찾는 계기를 늘려주고 있다. 취업과 생활정보를 주제로 한 기사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프라인 신문 지면에도 활용하려는 노력이 많아졌다.

이미지를 강화한 지면 변화

글자만 있는 딱딱한 신문은 싫다! 독자의 취향에 맞춰 많은 대학신문이 기사와 관련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지면에 활용하고 있다.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이다. 고대신문의 설계영(국문3) 취재부장은 "기존의 이미지보다 글을 중심했던 딱딱했던 판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장을 압축해 사진을 늘리고 있다"며 "지난 2일 발행된 신문에는 1면에 처음 일러스트를 삽입했다"고 말했다.

통합홈페이지 운영

현재 대부분의 대학신문이 오프라인 신문과 함께 인터넷 신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 중

독자 관심과 참여 증대가 최대 과제

다양한 소통공간 · 정보제공 등 새로운 시도 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정말 좋겠네~정말 좋겠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즐겨 불렀던 이 노래. 이 노래에 대학언론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 바로 '내가 나오는 신문'을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신문은 독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학신문과 대학 내 발행되는 잡지에 대한 독자들의 참여도는 확연히 다르다. 각 대학신문과 '대학내일'을 비롯한 대학생 매거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대학신문과 대학 매거진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대학 신문은 일단 학내 소식에 대한 보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캠퍼스 내에 발행되는 대학 매거진보다 정형화된 딱딱한 기사가 많다. 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자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학 매거진이 대학신문에 비해 비교적 빨리 독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지면을 꾸리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인 '취업' '어학연수' '여행' '패션' '면접' 등을 주아이টে임으로 정해 이에 대해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대학내일은 일반 학생들을 지면에 활용하는 주요 타겟으로 내세워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대학내일의 연재코너 중 하나인 '만원데이트'는 일주일에 5~6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표지모델 신

청인원은 이보다 더 많다. '캠퍼스 헤럴드'의 이종희 편집장은 "동아리 소개나 체형기,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5월말까지 신청과 관련 글이 꽉 차있다."고 밝혔다. 우리 신문에서도 앞으로 해외체형기, 공모전 체험기, 취업면접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사를 만들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발행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신문 홈페이지에 단순히 신문의 기사를 업데이트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종이신문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유의 공간



으로써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한다. 고대신문의 인터넷신문인 '쿠키'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발행하는 기사 이외에도 상점, 야라바이트 정보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을 비롯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아이টে임을 활용하는 동시에 독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오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심층적인 기사를 제공하고 온라인 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 정보를 홈페이지 공간에서 활용해야 한다. 대학신문의 특징을 살리는 동시에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4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디에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4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일 정**
 - 가. 일 시 : 4월 19일(목) 오후 3시 ~ 5시
 -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 다. 진행 : 문예창작학과 정영우 교수
 - 라. 선정영화 : 천년학 / 임권택 감독 2007년작
 - 로. 관련도서 : 선학동 나그네 / 이청준 지음 1979년.
 - 마.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관장> 내 <이용자 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가.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야 하며, 영화감상 후 입장권을 토로 큰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봄봄>의 점순이를 찾아 떠나는 문학 기행 제3회 도서관문학기행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속의 배경지를 기행하면서 자연환경과 그곳에 따르는 문학적 배경,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봄으로써 독서와 창작의 의미를 고취시켜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많은 신청바란다.

- 행사명** : <봄봄>의 점순이를 찾아 떠나는 문학 기행
- 행사내용**
 -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봄봄>의 배경이 되는 실례마을을 방문 김유정문학촌과 생가를 보면서 김유정의 문학세계를 이해한다.
- 신청대상** : 모든 동국가족
- 인 원** : 25명(신청순)
- 행사일시** : 2007.4.28(토) 9:00~18:00
- 답사장소** :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실례마을, 남이섬 관광 및 김유정문학제 행사 참여
- 참가비** : 1만원
- 접수처**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 접수기간** : 2007. 4.2(월) ~ 4.12(목) 09:00~17:00
- 공지사향**
 - 가. 세부일정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참조
 - 바람
 - 나.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비는 개별 준비)
 - ※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2006학년도 도서관장서 및 이용통계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제11장 제5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서확보현황, 이용율을 공지합니다.

▶ 총 장서량 현황

구분	단행본 (권)					계
	국내서	국외서	고문헌	학위논문	비도서자료	
장서수	799,257	118,481	28,891	133,326	33,199	1,113,156
구독종 연속간행물(종)	국내		국외		계	
	구입	기증	구입	기증	구입	기증
	647	0	551	0	1,198	0
소장 연속간행물	국내		국외		Web DB/전자저널	
	9,138		3,397		13,958종 13,572titles	

▶ 이용현황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기타	계
대출현황	13,152	3,327	457	184		17,120

대출현황	구분	대출현황					계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기타	
1인당 대출책수	관외대출책수	282,518	57,246	4,025	2,721	6,912	333,422
	이용기간	5책/14일	10책/30일	20책/90일	10책/30일		
1일 대출책수	1인당 대출책수	19.96	17.2	8.8	14.78		60.74
	1일 대출책수	880.93	209	13.5	9.13	6.12	1,118.68

▶ 단과대학별 연간대출책수

대학	총학생수	대출책수	1인 대출책수
불교대학	218	7,659	35.13
문과대학	1,415	39,692	28.05
이과대학	903	14,991	16.60
법과대학	594	17,032	28.67
사회과학대학	1,909	43,563	22.82
경영대학	2,431	34,844	14.33
생명자원과학대학	594	10,043	16.91
공과대학	1,925	32,320	16.79
정보산업대학	1,420	23,213	16.35
사범대학	1,162	29,009	24.96
예술대학	581	10,152	17.47
계	13,152	282,518	19.96

영국 대사관 체험기

작은 영국을 다녀오다



지난 4일 수요일, 영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Think U.K.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대학 신문사 초청 행사에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대표로 후배기자 두 명과 함께 참여하였다. 건국대, 중앙대, 홍익대 등 서울시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행사였다.

워릭 모리스 영국 대사관의 영국 대사관의 조직에 대한 소개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올해 이 캠페인의 목적은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지구적 난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의 영국의 역할 및 동 주제에 대한 토론 추진, 영국의 무역투자 기회 증진, 영국에서의 교육 기회 강조, 영국 관광 및 여행 촉진, 영국의 과학혁신 전문성에 대한 인식 향상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Judith

Gough 참사관은 영국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 인권 캠페인, 기후변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다. 각각의 발표 후에는 이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심도 있는 질문으로 참사관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사관 내의 각 조직들과 대사관자의 견학 및 직원들과의 만남이었다. 각 조직을 돌아다니면서 각 부서의 업무 및 관련 질문을 받았다. 과학기술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질문이, 상무과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공세 때문에 각 팀당 시간이 지체되는 일도 벌어졌다.

각 부서 견학 후에는 대사관자에 가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대사관 직원과 대사관과의 사진촬영과 담소를 나누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방문 때 갑탄

하셨다는 대사관자의 정원은 너무 아름다워서 참여한 학생들은 정원에서 사진 찍기 바빴다. 그리고 대사관님은 한국 전쟁 때 이곳이 폭격당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는 농담까지도 덧붙이셨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대사관 내에 마련되어있는 작은 바에서 참여 학생 모두와 직원과의 파티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지 못했던 영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더 친숙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니, 축구팬들은 빼놓지 말고 꼭 홈페이지를 체크하시기를! 윤슬기(문과대 영문3·동국포스트 편집장)



학생상담센터 활용 Tip - ② 대학생활에서의 진로선택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할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해양구우 자유로운 생활에 첫 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군대 가기 전 1-2년은 그야말로 집중노도와 같은 자유를 만끽하며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학 입학 후 1-2년은 보다 다양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을 했다.

그렇지만 요즘 근래의 신입생들은 과거의 그런 생활들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며, 그런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처럼 대학 입학 후 자유를 만끽한다는 경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외국어 공부나 학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는 우리 대학문화의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대학생활의 경직성을 가져 오기도 했다. 오직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 혹은 영어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 학생들의 좋은 학점에 높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도 자신이 가야할 길, 즉 진로를 어떻게 선택 할지 모를 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 열심히 대학생활을 해왔고 또한 하고 있는 3-4학년들에게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새내기 시절 자신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지,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대학생활동안 높은 열정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임하며, 막연한 미래를 위해 좋은 학점과 높은 영어 성적을 준비하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무얼 해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허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공부해온 전공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고 과연 내가 공부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과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진로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고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공교육 12년 동안 오로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해왔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연습이나 진로 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입학을 한 학생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이다.

과거에는 취업하기 전 4학년 때 급하게 결정을 내려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경쟁을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직종들도 비슷비슷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다양한 진로와 직종이 생기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세밀한 일을 하는 직업이나 직종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하는 것들을 같이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나 직종을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직종이라도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보다 좋은 인상과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자신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인식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탐색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온 가치관이나 한정적 정보로만 하는 진로 탐색과 결정이 아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진로탐색과 결정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도움을 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진로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인턴쉽이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가치관과 직업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항상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쟁에 참여하여 나의 역량을 발휘할 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진로에 대한 결정 및 탐색은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삶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신중히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진상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열린글터

본 취지를 살려 발표수업 진행돼야

발표 수업의 취지는 수동적이고 단선적인 수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쌍방향적인 내용으로 이끌어 나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수업 명이 좁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의문이다. 내 경험으로는 발표수업을 하면 한 조당 한 시간을 부여받는데 1시간 15분 강의에 1시간 발표를 듣고 15분의 교수님의 코멘트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심지어 발표만 하다가 끝나버려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없이 프리젠테이션 하나를

보고 수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어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님인지 학생인지조차 헷갈린다. 3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듣기에는 비싸다. 또한 발표수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문제다. 보통 팀을 짜서 2주 내지 3주에 걸쳐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인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몰린다. 이 기간은 리포트가 물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중간고사의 해방감보다는 발표와 리포트의 중압감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다. 발표

매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채우자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는지, 확신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치인이 되고 싶었고, 올바른 행정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지금, 내가 고수해온 꿈이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행정학과에 진학하면서 행정학이 공익을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학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뿌듯했고 행정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행정은 내가 아는 행정이 아니었다. 공무원 시험의 한 과목이었다. 그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적성숙이 아닌 미래를 위한 수단이었다. 물론 내가 장차 하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과목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었다는 생각에 회의를 느꼈다. 사실 행정을 배워 공무원이 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본래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한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서의 즐거움, 보람이 아니라 모두 수단으로서의 존재 같았다.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민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스케줄은 일반적으로 교수님이 정하다 보니 다른 수업과 겹쳐도 하소연할 곳도 없다. 나는 일반적으로 발표 수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를 준비하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수업에 집중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강좌 당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정원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리고 있고, 교수님들의 일방적인 발표 스케줄 적용으로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기간에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발표 수업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학생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용근(사과대 신협4)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그리던 미래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엄청난 공무원 시험 경쟁을 역시 진저리를 치게 한다. 모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고시만 붙으면 된다는 말로 들린다. 꿈만 먹고도 배부를 줄 알았던, 내 미래를 위한 밑바탕이 될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이 미래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진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방안은 아직 없다. 하지만 한 걸음씩 방향을 바꿔보려 한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정성을 쏟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이룰 수 있겠지. 매 순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채워야겠다.

이예리(사과대 행정2)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졸업패스 3 과목의 학점을 잘 받아 졸업시험 면제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가 지금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역시나 어렵다는 것... 하지만 지금 내 상황으로서는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늦

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 아니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그리고 다른 걱정거리의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만 머지않아 졸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나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대학을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니면서 현실로 다가온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열심히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나타났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가야할 방향을 정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듯하다.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대학생만 되면 모든 것이 '만사 ok'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부담감이 막중하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날들이 더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를 위해, 보다 나은 내 미래를 위하여 빨리 좋은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도은영(이과대 수협3)



독자 사진첩

로마 ... 천사의 다리에서 바라본 성베드로 대성당 - 임진환(공과대 전기공4)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금주의 식단	월 (4/9)	설렁탕 (2000) 제육볶음(2000) 계란말이(백반) (2200)	순만두국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두부김치 (2000)	원장찌개 (3200) 김치찌개 (3500) 지반우조림 (3800)	탕국 (2300) 치킨가스정식 (2900) 오징어떡볶음덮밥 (2500)
	화 (4/10)	돈육김치찌개 (2000) 치즈볶음밥 (2000) 치킨탕수육 (2000)	사골우거지탕 (2000) 누지비빔밥 (2200) 오무라이스 (2000)	원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제육볶음 (3500)	사골곰나물해장국 (2300) 양파비빔밥 (5000) 중국식볶음밥 (2900)
	수 (4/11)	산채비빔밥 (2000) 함박스테이크 (2500) 제육김치볶음 (2000)	부대찌개 (2000) 닭꼬치구이 (2000) 콩나물비빔밥 (2000)	원장찌개 (3200) 삼겹살누지볶음&쌈 (3800) 삼치구이 (3500)	해물야채죽 (2500) 일식돈가스정식 (2900) 스팸김치덮밥 (2500)
	목 (4/12)	수제비 (2000) 오징어상추비빔밥 (2000) 떡볶고기 (2000)	산삼적구이(백반) (2200) 돈육고구마김정 (2000) 안동찜닭 (2000)	원장찌개 (3200) 우거지갈비탕 (4000) 해물찜 (3800)	건설우미역국 (2500) 간짜육정식 (2900) 쇠고기콩나물밥 (2500)
금 (4/13)	비엔나계첩볶음 (2000) 제육덮밥&계란후라이 (2200) 떡볶음 (2000)	쇠고기국밥 (2000) 김치볶음밥&계란후라이 (2000) 제육떡볶이 (2000)	원장찌개 (3200) 돌솥비빔밥 (3500) 돈갈비찜 (3800)	산두부찌개 (2500) 오무라이스 (2900) 중국설렁탕 (3500)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생들의 목소리 생생하게 전달하길

지나호 동대신문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소식 등으로 우리 학교가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를 보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식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1면의 '교직원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기사에서는 그동안 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던 인사행정 관행을 탈피하고 능력 위주의 기준을 적용해 혁신적인 인사를 거행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본교의 모습을 소개했다. 우리 학교는 연공 서열에 따라 인사를 단행해왔는데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는 소식은 투명한 학교 행정을 이뤄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오영교 총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앞으로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들은 매년 오르는 등록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학교측은 인상된 등록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현재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등록금 환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협의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학생과 학교가 상생하는 결과를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보도면에서 제시된 '당신은 투명한 학교 행정을 이뤄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

속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도함으로써 술 문화와 취업만을 대학 공부의 목표로 삼는 대학문화를 비판했다. 이 기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후회없는 대학 생활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8면에서는 우리 학교 출신으로 MBC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김경근 아나운서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말은 "꿈을 이루려면 땀을 흘려라" 라는 말인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동대신문이 학교의 소식을 더욱 알차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이지수(경영대 경영2)

머리 속을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문으로 채우자

요즘 대학생들은 멋쟁이다. 옷도 한껏 멋지게 입고, 얼굴에도 부티가 난다. 한 세대 전의 대학 생활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일어난다. 반면에 자아를 성숙시키려는 열정은 많이 약해지고, 그들의 머리는 알맹이가 아닌 잡동사리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대학 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의 목적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 교육이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라도, 나는 요즘 소위 멋쟁이 대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가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겉멋내기에만 열중하고 내면의 멋내기에는 그렇게도 소홀히 하는가? 왜 최소한도의 교양을 갖추고자하는 열의마저 그렇게 약한가?

실용에 치우친 교양교육

여러 대학들이 학부대학이나 교양학부를 만들어 이런 저런 교양 강좌를 수 없이 개설하고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떠들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논단

이한구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이 교양교육을 죽이고 있는 형편이다. 너무 많고 교양같지도 않은 교양강좌 덕분에 문학, 사학, 철학 등의 핵심 인문학과 정치, 경제 같은 기초 사회과학 강좌는 폐강이 속출하고, 다이어트 건강관리, 얼굴화장술이나, 대화술이니하는 교양강좌들은 남녀구별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실정이다.

워낙 외모를 중시하는 풍토이고 요즘 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시절에 면접시험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위정은 이해할 수 있다. 또 자신을 관리하는 일은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대학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어떠한 설명도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풀어 주지는 못한다. 우선 머리 속부터 알맹이로 채운 후, 여력이 있을 때는 겉멋도 부리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일 것이다. 머리 속은 텅 빈 상태인데 겉멋주의로만 나간다면, 대학 생활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회를 통찰하는 안목 길러야

대학생활은 약간의 기능적 지식을 배웠다 해서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대학생이라면 일정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함께 삶과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안목을 길러야 한다. 이런 통찰력이 없다면 아무리 겉멋을 부린다고 해도 빈껍

데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선현들이 추구했던 꿈과 이상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이나, 그들이 도달한 높은 정신 세계를 맞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문학과 역사 및 철학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 말하자면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만 우리는 작은 나를 벗어나 큰 나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고, 이때에만 의미있는 삶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능적 과목을 다소 수강하여 사회진출에 대비하도록 권장하면서도, 인문학 이외의 다른 학생들에게는 교양과목의 대다수를 문, 사, 철 강좌와 기초 사회과학으로 채우도록 강조하면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최고 경영자(CEO)나 사회지도자까지 오른 사람들의 대다수가 학부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는 통계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군들이 어떤 조직의 부속품 역할이나 하면서 일생을 보내고자 한다면, 도구적 이성을 다소간 연마하는 것으로 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아를 실현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군들의 머리 속을 먼저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으로 가득 채우자.”

보리소

하나를 잃었다고 전부를 포기하라

몇 년 전이다.

어느 해처럼 수능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나갔는데 모두가 여학생들이었다. 나 자신이 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지라 수험생들에 대한 친근감과 애뜻함이 더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1교시가 시작되고 깊은 정적과 함께 시간이 흘렀고, 어느 새 시험 종료 10분전 예고 방송이 나왔다. 잠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저, 집에 가면 안 되나요?” 시험도중 퇴실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가까이 가보니 아직 풀지 않은 문항이 10문제 이상 남아있었고 OMR 카드는 전혀 작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줬지만 1교시 종료 후 답안지를 제출한 후 그 수험생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1교시의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그 여학생은 나머지 시험마저 포기해 버린 것이다.

어떤 사람이 250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자 ‘이미 한 마리의 소를 잃었으니 완전한 것이 못되니 이 소를 어디 쓰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곧 남은 소들을 깊은 구덩이와 높은 언덕으로 몰고 가서 모두 죽여 버렸다. ‘백옥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기 등장하는 250마리의 소는 스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250가지 계율의 조목들을 비유한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가지를 파계하고는 여차피 완전함이 깨졌으니 나머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나머지 249가지 계율을 모두 버리는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말씀이다.

올 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언어영역 문항수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고, 시험시간은 90분에서 80분으로 줄어든다. 지난 달 14일에 달라진 체제를 적용한 첫 번째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렀다. 문항수가 줄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힘들어 한다. 제도와 환경이 개선되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자신감의 원천은 역시 마음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비단 울해 대입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뿐이겠는가. 누구나 소 한 마리를 잃었다고 나머지 소 떼를 모두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으리라.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now here) 포기하면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다(no where). 지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미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학주
사범대학 부속여고 교장사

메아리

우리의 갈기도

▲ “이건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야~” “이건 사과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1이 남자2의 머리를 때리자 남자2는 방금 전까지의 나약한 모습에서 “지금 나 찡?”하고 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기가 죽은 남자1은 차마 자존심이 있어 하려는 듯 속이고 고개만 까딱하며 대충 사과한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남자2는 찡찡하지만 웃으며 사과를 받아들인다.

한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 ‘갈기도.’ 이 코너의 레퍼토리는 양쪽이 어정쩡한 상태로 한 발씩 양보해 ‘그런대로’ 만족하는 상황극의 반복이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일 1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그동안 한미 양국 협상단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각 부분별로 한 치의 양보 없는 각축전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부터 진행됐던 ‘끝장협상’에서는 협상대상에서 ‘논의’로 돌아왔던 쌀 개방, 소고기 문제 등을 막판에 와서 다시 언급했고, 영랑인 미측의 개방안에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으며, TPA 시한을 불과 20여분 남긴 상황에서 겨우 마무리를 지어 ‘졸속

협상’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 타결안 중, 한미 FTA의 핵심 화제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 2가지 조건을 달아 추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로 한 데 대해 협상단 관계자가 직접 ‘개성공단 문제도 양국에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요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코너인 ‘갈기도’식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쓴웃음을 짓게 된다.

또한 협상 보고를 받은 후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한미 FTA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찬성하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용이 잘 모르겠고...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당내 분위기를 밝혔다. 타결 이후 쏟아지는 이런 ‘갈기도’식 발언들에 안타까울 뿐이다.

▲ 어찌됐든 FTA 협상은 420여일 만에 타결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국회 비준이다.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없는지, 피해산업 지원대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FTA특위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비돼야 하고 여론수렴 과정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국회 비준안 통과까지는 단순히 찬반을 묻는 절차가 아닌, 모두가 웃으며 책임질 수 있는 ‘철저하고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주현 대학부장
niitake@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르네 마그리트전을 보고



오 태 석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창조적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Ren Magritte)전의 장기 흥행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착을 보여준다. 필자도 창의적인 천재 작가의 의식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중국시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부과하고 전시회에 다녀왔다.

[숨은설명:시작]
(세계에 대한 관찰과 시적이며 은유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서로 맥을 같이할 것

으로 여겨 ‘중국어’ 강의의 리포트로 부과하였던 터라, 필자는 부담감 속에 책으로 약간의 예습까지 했었다. 하지만 넘쳐나는 인파 속에서 일상의 상식을 깬 여러 작품과 표제는 서로 잘 연결되지 않고 학생들이 느꼈을 당혹스런 막막함을 공감하는 또 다른 시간이기도 했다.)

[숨은설명:끝]

표제와 작품이 잘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필자가 받은 가장 큰 느낌은 20세기 초반 뉴턴 기계론의 종언과 양자 역학의 불확실성의 세계를 관찰하는 세계와 존재에 대한 작가의 의식의 흔들림이었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일상 생활과 기성 언어와 3차원 공간까지도 거부하는 도치와 치환과 각종 파격들, 유사성을 통한 다른 것으로의 전이, 그리고 창조적 조합과 은유적 이미지들로 드러나 보였다. 르네 마그리트는 자신이 미술가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이 음악 또는 시나 글로 생각을 나누듯이 회화를 통하여 사고를 교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관심은 아마도 쉽게 찾기 어려운 절대 가치가 아닌 유희적 삶의 파편들을 통

해 언뜻언뜻 드러나는 본질의 드러남의 순간들이었을 것 같다.

우리는 이로부터 우리네 존재란 무엇이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다가가게 된다.

[숨은설명:시작]

(존재의 궁극을 향해 헤엄친 유사 이래의 수많은 철학적 질문들은 언어와 사유의 장벽 아래 백기를 들고, 우리는 아직도 존재의 심연을 향해 헤엄쳐 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것 같다. 정말 존재의 중심은 있는 것일까? 이같은 여러 가지 생각은 학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삶 속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숨은설명:끝]

도가의 창시자 노자는 세계의 근원은 무(無)이며, 무가 태극을 낳고, 또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스티븐 호킹이 무의 미한 질문이라고 하였지만, 만약에 빅뱅 이전의 가상의 원초 상태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노자의 무는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유희를 낳는 또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이다. 비어있음은 단순한 빈이 아니라, 색(色)의 공(空)이요 공의 색인 것이다.

양자역학에서 원자보다 작은, 물질의 최소 단위원 쿼크(Quark)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도우넛과 같이 중심이 비어있으며, 그것은 관찰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매순간 다른 유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하였다. 사물의 궁극이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비어있음이라면, 우리의 존재와 삶이 유희하며 흔들리고 또 흘러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허와 실이 함께 관계 소통하여, 허가 실을 돕고 실이 허에 의지하는 것, 이는 동양에서 대립 모순되는 음과 양의 상호 조응을 통한 총체적 조화 통일로의 지양적 지향이다. 이것은 단절이 아닌 연속이고 대립이 아닌 통합이며, 그리하여 도달할 길 없어 보이는 저편에 이를 수 있게끔 해주는 뫼비우스(Moebius Strip)적 해법이기도 하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굴원(屈原)이라는 충신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쫓겨나 강호를 떠돌다 뫼베를 뱉다. 어부가 왜 그리 씩씩거리는가 물으니, 세상의 물이 탁하여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지 않음에 좌절 분노한다고 하였다. 이에 어부는 세상이 탁하면 그 파도를 타고 때를 기다리라니 뫼베, 무얼 그리 화를 내는가며 뱉음을 두드리고 떠나갔다 한다. 어부가 굴원의 결백을 모르지 않건만 자아와 세계와의 보다는 옹화 소통을 위한 또 다른 화두를 굴원에게 던진 것이다. 정해진 답, 즉 정답(定답)이 없는 흐름 속의 삶, 그리고 그중에서 풀 길 없는 이면에 숨겨진 본질이 아닌 사물의 표면으로부터 찾아내기, 그 현실적 흔들림의 진지한 파격적 시도와 여정들, 이것이 르네 마그리트를 본 파편의 조각 맞추기의 하나이다.

사설

3불정책, 세부적 논의 먼저 이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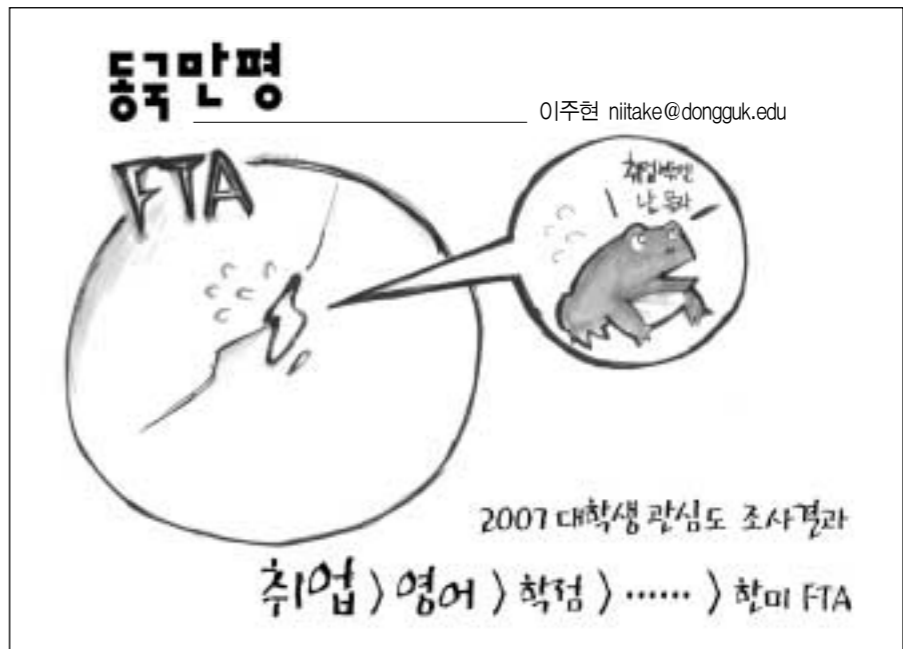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일 EBS 영아교육채널 개국식에 참가해 ‘대학 보고서 시행에 대한 자율인가’에 대해 1시간동안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경쟁환경에서 유리한 사람들은 계속 보고사를 하자고 하는데, 몇 사람을 더 선발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불정책 폐지’ 논란이 여전히 대학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현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보고서는 3불정책 폐지의 핵심이며, 보고서를 비롯해 3불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노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다음주부터 ‘3불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각 대학과 정부는 3불정책을 둘러싸고 2008학년도 입시안 발표시점부터 베그터 거리기 시작해 여전히 대학들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3불정책 고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학과 정부의 입장차가 크다.

3불정책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3불정책에 대한 고수 혹은 폐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3불정책에 대해 대학과 정부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3불정책의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3불정책을 유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3불정책’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기에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설문조사 전문기관이 ‘3불정책 폐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보고서는 허용하되, 고교등급제와 기어입학제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2불 1가’ 방식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 고교등급제, 기어입학제 모두를 한꺼번에 폐지하거나 시행하는 방식이 아닌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안도 현재의 정부와 각 대학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3불정책에 대해 폐지나 고수 식의 현재의 이분법적인 대립은 자칫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모적 대립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 3불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대학과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학발전과 국민의 교육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편집장 감지혜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응급상황, 이럴때 어떻게?? - ① 화상

화상, 물집은 내버려 두세요

화상이란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입은 상처를 말한다. 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1, 2, 3도로 나뉜다. 물집이 터지지 않은 1도와 2도 화상은 화상을 입으면 바로 흐르는 찬물에 담가야 하는데, 이는 열을 식히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곧바로 부어오르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 물집은 터뜨리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자연히 혈액이 흡수되듯 조그마한 물집은 흡수될 수도 있으며 물집을 터뜨릴 경우 감염이 되어 상처의 치료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물집이 터지지 않으면 화상에 의한 흉터가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치료가 아주 쉬워진다.

③ 소독된 거즈나 손수건으로 환부를 덮어준다.

④ 물집이 터진 2도와 3도 화상은 찬물로 씻거나 찬물에 담그지 않고 마른 거즈를 대고 상처부위를 덮어준다.

- 충격이나 감염을 예방한다.

⑤ 감염예방 및 체온 유지를 위해 화상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어주고 보온을 한다.

⑥ 화상부위에 기름, 간장, 알코올 등의 이물질들을 바르지 않는다.

-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자료제공 = 보건소

※ 응급처치법

① 옷을 입은 상태로 화상을 입은 경우, 벗기지 말고 가위로 옷을 제거한다.

② 물집이 터지지 않은 1도와 2도 화상은 흐르는 찬물에 20분 이상 열을 식히며, 물은 너무 세지 않도록 한다.(물집이 터지는 것



학교 홈페이지를 '나'의 홈페이지로

블로그 · 클럽 · 멘토링 · 지식센터 등 다양한 기능 갖춰

혹시 그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그저 학사일정이나 성적확인을 위해 가끔 방문하는 낯설디 낯선 곳으로 여겨 오진 않았는지.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잘 둘러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메뉴와 기능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지난해 건학 10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마련된 블로그, 클럽, 멘토링, 지식센터와 e-class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1인미디어가 일상생활이 된 요즘 일반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클럽'을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 학교 홈페이지 내에는 약 780여개의 블로그가 개설돼 있다. 클럽은 △학과 · 전공 △동아리(소모임) △동국튜터링 △DO Dream 학습동아리 △취업스터디 △스터디 △멘토링 △기타 △외국어강의로 구분되어 있어 한눈에 쉽게 들어온다. 하지만 블로그는 단순히 개설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클럽은 대개 스터디와 팀업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신다운(경제2) 양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도 가능한 기능이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것 같다"며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

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도 해주는 '사이버 멘토링'도 눈에 띈다. 개인이 멘토나 멘티 신청을 한 후 멘티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멘토를 선택하고 그것을 멘토가 수락 하면 일대일 게시판이 생겨난다. 하지만 멘토와 멘티 등록에 그칠 뿐 아직까지 멘토링이 형성된 경우는 없었어 아쉽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 공혜정 계장은 "전문가가 멘토가 되어 다대일이나 일대일 멘토링을 한다면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이버 멘토링은 선후배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학내 구성원과 입학생도 포함 시킬 계획이다.

한편 단연 돋보이는 것은 '지식센터'이다. 이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선배들이 잘 대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답변을 달거나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식센터에 자주 답변을 하고 있다는 손용원(정외3) 군은 "지난 'i-point 이벤트'처럼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해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센터의 'Q&A'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에 교직원들이 답한다. 교직원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한 학생 이름 뒤에

소속 학과가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행정부서에서 손쉽게 답변을 할 수 있어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FAQ'에는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나 조회 수가 높은 글, 관리자가 지정한 Q&A의 글이 게시되기 때문에 질문 전에 한 번 검색해 본다면 더욱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 자랑할 만한 기능은 'e-class'라고 할 수 있다. 클럽과 유사한 기능에 e-class 명칭을 붙인 학교들은 있지만 우리학교처럼 학생과 교수가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한 번으로 이용할 수 있는 e-class는 드물다. 특히 교수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공간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으며 경영대나 공대의 경우 참여가 더욱 활발하다. 국어국문학과 김일환 강사는 "연동성이 좋고 이전 강의에서 자료들을 한번에 내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단체메일을 보내고 학생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꼭 필요한 기능이다. 뿐만 아니라 조

교가 교수 대신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조교 기능도 있다. 이렇듯 e-class는 다양한 기능으로 교수와 학생이 선호하고 있어 활발히 운영 되고 있다. 정보관리실에서 현재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전략계획)'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이 2년 이내에 완료 되면 우리학교 홈페이지는 복잡한 기능의 포털사이트 성격을 띠게 된다. 현재의 홈페이지는 개편을 하면서 커진 규모에 비해 내실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좀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입시나 취업관련 부서 등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는 등 기술적인 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도 충족시킬 계획이다.

어쩌면 학교 홈페이지의 구성은 화려한 대형 포털사이트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라는 특정한 기반을 마련한다면 보다 실속 있는 학교 홈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학내 구성원들 간에 일종의 소통공간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dongguk.edu



내 머릿속 그 작품 - 이시영의 시 '정님이'

따뜻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정님의 손길

정님이

이시영

용산 역전 늦은 밤거리
내 팔을 끝내 화들짝 손을 놓고 사라진 여인
운동회 때마다 동네 대항 릴레이에서 늘 일등을 하여
밥술을 타던
정님이 누나가 아닐는지 몰라
이마의 흉터를 가린 긴 머리, 날랜 발
학교도 못 다녔으면서
운동회 때만 되면 나보다 더 좋아라 좋아라
... 이하 중략

〈이시영, '만월', 창작과 비평사, 1976〉

혹자는 나의 정서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나는 철팔 십 년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80년대 중반에 태어나 번영의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 대한 나의 그리움, 어쩌면 그건 슬픔을 넘어서는 그 시절의 따스함과 연인에 대한 동경일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슬픈 시절. 모든 사람들이 바위덩이 같은 권력의 압제에 숨죽여 살던 시절. 그 시절, 모든 젊은이의 마음은 들끓었고, 사람은 사람에게 가슴 깊은 연민을 가졌다. 시를 쓸 수밖에 없었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들었고, 시인은 그 무리 속에서 대중의 손을 맞잡았으며, 그들은 함께 노래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때를 일컬어 시의 부흥기였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시영의 초기작은 그토록 암울하고 무겁던 70~80년대의 단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의 첫 번째 시집에 들어있는 '정님이'는 이런 그의 시 경향을 잘 드러낸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정 많은 시골 소녀 정님이 누나는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선지 고향을 떠난다. 그런 정님이 누나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식모도 갖다느니, 방직공장에 취직했다느니, 색시집에서 봤다느니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실을 알고 계신 듯한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하신다. 그리고 십 수 년이 흘러, 이제 나이가 든 화자는 서울에서 자신을 이끌었던 낯선 손이 정님이 누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정님은 특정한 한 사람이라기보다 당대의 평범한 누이의 표상이다. 그 시대의 평범한 누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할 일은 부잣집 식모나, 인간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공장 시다, 몸 파는 작부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화자의 손을 잡아끌던 그 여인이 실존인물이었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화자는 그녀를 통해, 정 많고, 순박했던 그 시대의 누이, 정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이를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만든 도시를 슬프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빠르고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들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상처받고, 조금씩 가슴이 딱딱해져가고 있지는 않을까? 눈에 팔려 원치 않는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21세기는 자기 살기에 급급해 서로에 대한 연민조차 가질 수 없는 시대는 아닐까? 정보와 속도도 표상되는 21세기, 날랜 발, 밤거리로 사라진 정님은 무엇인가 쫓겨 손수를 잃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님은 따뜻한 감성과 아련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인은 묻는다. 당신은,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정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한없이 거대해지는 도시에서, 피상적 관계만을 맺고 살아 가며 또 다른 정님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정님이 되 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우리는 그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정님은 아직, 우리 안에 있다.

송영진(예술대 문창)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업종 · 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겨울방학이 끝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고학년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계기를 제공하고자 1학기 '업종 · 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전학년
- 접수인원 : 1화~10회접수, 본관 취업지원센터 신청후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채의원/교내 3935)
- 모집인원 및 장소 : 외당 신청은 100명 다량반 세미나실
- 강의내용 : 업계 전망 및 통찰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시작 (오후 5시30분~7시30분)

회차	일시	내용	강사명	소속
4회	4월10일	<건설업> 취업현황 해보자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한용석	포스코건설 인사기획 팀장
5회	4월17일	<영업업> 판매왕이 될 수 있다.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박노진	대우자동차 상무이사
6회	5월9일	<유통업> 유통시장을 알면 직장이 보인다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심학보	삼성대스코 채용과장
7회	5월16일	<공기업> 바늘구멍 통과 전략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고태호	한국토지공사 인사채용차장
8회	5월22일	<교사> 사립학교를 뚫어라!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민 해	해원여자고등학교 교감
9회	5월29일	이재용 떠나서 따라잡기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이재용	MBC 아나운서
10회	6월5일	큐레이터가 되고싶다!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이주영	국립현대미술관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여대생의 진로관리능력 향상과 취업을 계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1기일정 장소 및 대상: 2007. 3. 16(토) ~ 2007. 3. 18(일) 본관 8172(인문과학관) 2층
- 제2기일정 장소 및 대상: 2007. 3. 30(토) ~ 2007. 4. 1(일) 본관 8172(인문과학관) 2층
- 제3기일정 장소 및 대상: 2007. 5. 11(토) ~ 2007. 5. 13(일) 본관 8172(인문과학관) 2층

프로그램 안내:

구분	시 간	교육 명	장 사
(금)	17:30~19:30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진단검사 MBTI성격검사/직업선호도검사	진로교육상담팀, 진심상
	9:00~10:50	여성의 생애설계와 비전만들기	지문정 (과도인)
	11:00~12:50	여성 셀프리더십	손은영 (과도인)
	13:00~13:50	잠시시간 및 Break time	
(토)	14:00~15:50	WOMAN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기법	이은정 (과도인)
	16:00~17:50	연결 Image Making	황혜(이대희), 박민(이대희), 김영(이대희)
	18:00~20:00	인사서류 클리닉	손영희, 이은정, 황희, 이경 (취업지원팀)
	10:00~11:50	★커리어우먼 직업탐색★ 여성유망직종 탐색 및 취업전략	이유진 (취업지원팀)
	12:00~12:50	잠시시간 및 Break time	
	13:00~14:50	커리어우먼 실전 액션	김주영(사내), 박민(과도인), 김주영(과도인)
	15:00~16:50	담당 컨설턴트의 전공별 소그룹 클리닉 (국·영문이력서, 자기소개서)	이은정(과도인), 진영(과도인), 진영(과도인), 박영(과도인), 신기정(취업지원팀)
(일)	17:00~18:30	신생아의 대화	양민영(상생동아), 이지영(상생동아), 김민영(상생동아), 조주희(상생동아), 장현숙(OS24팀), 김정희(유학문화)
	18:30~19:00	행사 평가 설문조사 및 수료식	진로교육상담팀
	19:00~20:00	멘토링 TIME 선배·후배 식사 및 간담회	진로교육상담팀

접수안내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신청은 50명 접수 (본관 1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채의원 / 교내 3935)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
모집인원: 기술별로 신청은 50명 (예비인원 50명까지 신청가능)
특: 점심식사 및 음료(과도인) 제공
수료증 발급(학점처장 명인) → **진심상** 인문대학 커리어우먼 연합 시 불우 요건 시인 우수참여학생 기금 3명 선발 상등 지급(1GB USB 메모리장치)
프로그램 종료 후 의정부출판 그룹 스토리드(교내)로 연계 (월봉비지원)

취업지원센터

100주년

내 후배 사랑 300억조성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월 3만원이면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은 학교발전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여 세계 일류동국을 앞당기자는 모교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부참여방법

- 월납, 분할납부 월3만원(100회(8년) = 3백만원 / 월5만원(60회(5년) = 3백만원)
- 기타 금액, 일시납부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한번 더 내기에 참여하신 동문께는.....

- ▷ 그 고귀한 뜻이 후학들과 모교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건학10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 보존하겠습니다.
- ▷ 아울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